



- 건설관련 타 연구기관에서 발표되고 있는 기업경기 실사지수와의 비교
 -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CBSI,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SBSI,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CEBSI를 비교한 결과, 4개 기관에서 지수가 100 미만으로 나타나 건설관련 연구기관 모두가 해당산업의 경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
 - CBSI를 제외하고 나머지 SBSI 및 CEBSI의 2/4분기 및 3/4분기 실적의 추세는 하락의 폭은 다르지만 하향 추세로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, '16년 4/4분기 전망에 대해서는 3개 기관의 지표가 모두 동일하게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, 하락폭 또한 유사하게 나타남

5. 연구의 한계점 및 기대효과

- 본 연구 진행기간 동안 설문조사 및 회수의 어려움, 시범사업기간임을 고려하여 조사 '서울'지역에 국한되어 일부 업체들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른 대표성의 문제, 분기별 조사로 인하여 건설업이 갖는 계절적 특성 반영의 어려움 등 한계점이 존재함
- 그러나 본 연구는 기계설비건설업 특징을 반영한 독자적인 경기 동향 분석 지표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, 개발된 기계설비건설업 기업경기실사지수(MFBSI)를 통하여 업계의 경영 상황 및 경기 전망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
- 장기적으로 축적된 기계설비건설업 기업경기실사지수 데이터는 건설관련 유사 분야 경기실사지수 데이터 및 거시경제지표를 비교하여 살펴봄에 따라 보다 현실적이고 정확한 경기전망을 할 수 있음 ⓤ

6

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기계설비공사 효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

오치돈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

1. 과제구분 : 수시과제

(연구기간 : 2016.5.1. ~ 2016.10.31.)

2. 연구의 필요성

-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발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발주방식의 하나로서, 지방계약법 대상 공사를 비롯해 국가계약법 대상 공사의 발주 담당자들이 본 발

주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발주자의 요구 및 제도도입 취지에 부합되는 효과가 제시되어야 함

- ‘12년~’15년까지 기계설비공사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된 사업 사례는 국가계약공사 약 30건, 지방계약공사 약 180건으로서 완성된 공사에 대한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사례가 축적되었음



3. 연구의 목적

- 본 연구는 동반성장 및 건설산업 상생을 위한 발주 제도로 정착되고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음

4. 연구의 내용

①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기계설비공사 효과

- 불공정 하도급 거래 폐해 예방
 - 기존의 원·하도급 생산방식과 달리 수평적 관계에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, 각종 불공정 거래의 폐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, 상생협력 및 동반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
- 적정 공사비 확보
 - 원도급업체와 동일한 낙찰율을 적용 받아 높은 공사비 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발주자의 추가 투입비용 없이 동일한 예산 내에서 품질향상 및 하자발생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음
- 학습효과를 통한 관리역량 강화 기대
 - 원도급 지위를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할 경우, '학습'을 통한 관리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동일한 업무를 효율적·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
- 부적격 업체 배제 및 장기적 협력관계 구축 효과
 -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은 기계설비건설업체의 기술경쟁 유도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부적격 업체 배제 효과를 통해 건설시장의 건전화가 가능함
- 공종 및 하자책임 소재의 명확한 구분
 - 기계설비공사는 설계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종으로서,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시 공종 구분뿐만 아니라 하자책임 소재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음
- 발주자의 업무량 변화
 - 본 발주방식으로 기계설비공사를 수행할 경우, 발

주기관 업무량은 다소 증가할 수 있지만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며, 감리도 별도로 배치되어 있어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

② 주계약자 공동도급 기계설비공사의 활성화 방안

- 적용대상 공사 확대
 - 현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기계설비공사 적용대상 공사는 지방계약공사 중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, 국가계약공사 중, 300억 원 이상의 종합심사제 대상 공사로 한정되어 있음
 -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공사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크므로 이를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 공사로 포함할 뿐만 아니라 '대형공사' 및 '특정공사'까지 확대해야 함
- 공공기관 경영평가 인센티브 부여
 -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도입목적은 각종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폐해를 예방하고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는 등 전통적인 생산방식(수직적 원·하도급 방식)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'사회공헌'에 포함될 수 있는 정부정책이라 할 수 있음
 - 따라서,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시, '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'를 '정부권장정책'에 포함하고, 현재 포함된 각종 권장정책과 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관별 발주실적자료를 활용하여 별도의 가점(incentive)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
- 공동비용 분담 규정 명확화
 -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수행되는 사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각 계약주체가 종합적 계획·관리·조정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및 공동경비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으나, 이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하여 지속적인 마찰이 발생하고 있음
 - 주계약자는 입찰 시 종합적 계획·관리·조정 업



무에 필요한 비용을 입찰금액에 반영하였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, 공동경비 분담은 '공통가설공사' 내역항목의 계상주체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

-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의 홍보
 -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수행되는 기계설비 공사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확인할 수 있음
- 따라서, 기계설비건설업체는 본 방식으로 수행된 사업에서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축적 및 자료화 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

5. 결론 및 기대효과

- 본 발주방식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부계약자로 참여하는 기계설비건설업체는 적정 공사비 확보를 통한 품질향상과 기계설비건설업체의 관리역량 강화 및 기술개발을 유도하고, 부적격업체 배제를 통한 건설시장 건전화, 나아가 지역경제 및 국가 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
- 본 연구의 효과분석 결과는 기계설비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물량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ⓤ

7

기계설비설계의 적정 설계비 확보 방안을 위한 기초 연구

이영준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

1. 과제구분 : 위탁과제

(연구기간: 2016.6.1. ~ 2016.11.30.)

2. 연구의 배경 및 목적

- 기계설비설계는 건물에너지 절약과 온실 가스 감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건축사와의 협동에 의한 설계 용역 금액은 전체 설계용역 금액 대비 5~7% 정도에 불과한 실정임
- 또한, 저가 하도급, 대금 미지급 및 지연 등과 같은 불공정 거래 등에 의하여 건축물의 품질이 저하되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음
- 따라서, 기계설비설계의 설계비에 관한 국내외 현

황을 비교, 조사하고, 이를 통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법적, 제도적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기계설비설계의 적정 설계비 확보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

3. 연구의 내용

- 기계설비설계에 있어서 설계비 지급에 관한 국내 현황
 - 국내 설계 용역비 산정은 평당 단가 산정방식, 실비정액가산방식과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등 주로 3가지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음
 - 견적금액 대비 계약금액은 아파트는 20,000평